

# 일본의 혐한류와 미디어내셔널리즘: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박수옥\*\*

『만화 嫌韓流』의 발간 이후 인터넷상의 혐한현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혐한현상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국가들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양국의 우호관계유지는 자국의 발전과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한 문제이다. 본고의 목적은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혐한현상의 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혐한류의 진원지인 2ch(니찬네루, 이하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혐한류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분석하고 원인을 탐구한 다음 이들의 혐한의식과 일본사회 전체의 대한인식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만화 嫌韓流』의 내용과 흡사하였고, 표현방식도 매우 과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한인식과 많은 괴리가 있었다는 점과 혐한류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인 대한인식이 18%나 존재하였다는 점, 전체 인터넷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혐한류의 소스가 기존 미디어의 기사였다는 점과 주 이용자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책임져 나갈 젊은 세대라는 점,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제어: 혐한류, 2ch, 미디어 내셔널리즘, 인터넷, 대한인식

## 1. 서론

『만화 嫌韓流』<sup>1)</sup>의 발간 이후 일본의 혐한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 서적은 발간 즉시 일본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예약만으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는 점 외에도 ‘니찬네루’<sup>2)</sup>(2ちゃんねる, 이하 2ch) 게시판과 발간사인 신유사(晋遊舎) 게시판을 중심으로 만화내용에 공감하는 글과 만화의 판매를 둘러싼 갖가지 루머 등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사회 일부에 한정된 흐름으로 보이지만 열린 공간인 인터넷뿐

\* 이 논문은 2009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세션에서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어 학보의 통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된 논문임.

\*\*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myangel3@kookmin.ac.kr)

1) 야마노 사린(山野車輪, 필명)의 『만화 嫌韓流』는 2005년 7월 26일 1권이 발간된 이후 2006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에 맞춰 2권이 발간되었고, 2007년 8월 28일에 3권, 2009년 4월 30일 4권이 발간되었고, 현재까지 시리즈 누계 90만부가 판매되었다. 이하에서는 혐한류 현상과 만화작품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혐한류’와 『혐한류』로 표기하겠다.

2) 혐한류의 온상으로 알려진 2ch(<http://www.2ch.net>)는 1999년 5월 니시무라 히로유키(西村博之) 일명 ‘히로유키’가 개설한 게시판으로 게시판의 수와 히트율면에서 세계 최대이다. 2009년 1월 싱가포르의 ‘패킷 몬스터사’(packet monster inc.)에 양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히로유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2ch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장양도로 보인다.

만 아니라 잡지와 만화, TV, 역사교과서, 학교교육 등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포되고 논의되고 있는데다 『嫌中流』라는 아류 만화까지 등장시키는 등 아시아인에 대한 그릇된 인종편견과 개인간·국가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일 양국은 북핵문제 논의와 시장의존도(남덕우, 2006, 192쪽)<sup>3)</sup>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자국의 생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류’와 ‘일류’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혐한현상과 2008년 12월 일본 네티즌들의 반크사이트 공격, 이를 둘러싼 한일 네티즌들의 공방전 등 일련의 움직임들은 양국의 우호증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의 주 사용자들이 젊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국의 미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가진 파급력은 자국 내에만 머물지 않고 상대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내셔널리즘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중국의 반일테모와 베이징올림픽에서의 반한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수정주의 내용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젊은 세대와 사회는 우리가 우려할 만큼 심각하게 우경화되었는가. 아니면 ‘일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가? 또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혐한현상의 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혐한류의 진원지인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혐한류의 내용과 표현방식을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에서 ‘긴밀한 사회성’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의 행동양식이라는 입장에서 고찰해본 후 혐한현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 2. 미디어 내셔널리즘과 혐한류

영토와 국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국가를 비하하거나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형태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미디어 내셔널리즘’<sup>4)</sup>(大石裕, 山本信人, 2006, 4쪽), ‘넷셔널리즘’<sup>5)</sup> ‘네트우요’<sup>6)</sup> ‘J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3) 한국의 경우 총수출의 1/5과 총수입의 1/3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제4위의 수출시장, 9위의 수입시장이다.

4) 미디어와 인터넷의 보급이 오히려 국가를 단위로 하는 민족주의를 증폭시키고 있는 현상.

5) 인터넷의 ‘net’과 민족주의를 뜻하는 ‘nationalism’의 합성어(2008년 3월 22일), “한중일 누리꾼 넷셔널리즘 ‘막말 삼국지’” 『동아일보』.

6) ネット右翼(ネットウヨ, ねっとう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우익을 지칭.

담론들은 전파가 빠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TV 예능프로그램과 잡지, 서적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한류』 구입운동이나 반크사이트 공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오프라인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인터넷상의 협한현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내셔널리즘적인 관점과 사회학적인 관점,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술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셔널리즘적인 관점에서 네티즌의 행태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이시 유타카(大石祐)는 최근의 이러한 현상을 ‘미디어 내셔널리즘’이라 명명하고, “한·일간에 마찰이 발생했을 때 한일양국의 미디어와 국민여론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셔널리즘을 증폭시켰으며, 이 같은 양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강화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오이시의 연구는 미디어 내셔널리즘의 현상을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상분석에만 편중하여 네티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에 편승하고 열광하는지,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한편 나카니시 신타로(中西新太郎, 2006)는 협한주의자들을 ‘이성적인 일본’ 대 ‘감정적인 한국’라는 대비 구도를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전후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향은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J-POP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재팬쿨’이라는 우월의식과 연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카하라 모토아키(高原基彰, 2006)는 일본과 중국, 한국에서 내셔널리즘이 폭주하여 지역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고 있는 현상을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로 규정하고, 고용불안정과 중간층의 동요에 의한 개인적인 불안감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불안형 내셔널리즘은 자국사에 대한 재검토와 ‘취미화’한 내셔널리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 미디어에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근거로 한 놀이와 축제라는 점,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분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의 협한현상을 내셔널리즘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살펴본 이들의 연구는 민족적인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지금의 현상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카하라가 주장하는 ‘불안형 내셔널리즘’은 사회의 불안정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학습해온 국가주도의 내셔널리즘이 인터넷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오쿠라 기조(小倉純藏, 2005)와 아즈마 히로키(東造紀, 2001)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각각 ‘동아시아와의 연대’와 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의 표출로 협한현상을 바라보았다. 오쿠라는 한류와 협한류현상이 포스트모던화에 의해 해체된 주체를 되돌리려는 점에서 공통한다고 지적하고, ‘동아시아와의 연대’와 ‘일본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한다’라는 역의 방향성에서 사상을 실천하는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또 “이것이 상대의 아이덴티티와의 만남과 충돌을 불러일으켜 반일과 혐일이 대두하여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때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즈마는 협한류현상에 대해 내용은 ‘협한’이지만 형식은 ‘긴밀한 사회성’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하고 협한류의 내용과 형식을 나눠서 설명하였다. 또 ‘협한=우경화=군국주의화’로 파악하는 것은 단격적이며, 네트우익을 확장된 자유주의자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2ch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주목한 히라이 토모히사(平井智尙, 2007-3) 2ch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혐한현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2ch에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언어양식과 은어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대형매체의 언론 공간에서 볼 수 없는 의견과 정보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이 ‘혐중’과 ‘혐한’ 같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아사히신문』 같은 특정 매스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히라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문맥을 상실한 채 단순하고 배타적인 언설로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2ch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양식이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발생한 문화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혐한현상의 원인을 ‘긴밀한 사회성’의 추구하고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양식’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아즈마와 히라이의 연구는 혐한현상을 주도하고 소비하는 니찬네라<sup>7)</sup>들의 행동과 습성을 잘 분석하였다고 여겨진다. 니찬네라들은 익명성의 그늘 아래서 어느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는가 하면 충동적이고 이유 없는 증오를 발산하기도 한다. 혐한류에 열광하는 니찬네라 중에는 강한 내셔널리즘을 소유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니찬네라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뿌리 깊은 ‘애국심’이나 내셔널리즘에서 출발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따라서 혐한류에 열광하는 대다수는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인’이며, 이들이 만들어낸 혐한류현상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터넷상의 ‘사회성’을 추구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주변화된 젊은이들의 심리를 분석한 다카하시의 논리와 ‘긴밀한 사회성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즈마의 개념은 혐한현상 분석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불안형 내셔널리즘’과 ‘긴밀한 사회성을 추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2ch의 게시 글을 분석해보겠다.

### 3. 한일관계와 한류 그리고 혐한류

#### 1) 혐한류의 정의 및 현황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혐오감을 뜻하는 ‘嫌韓流’는 『만화 嫌韓流』가 발간된 후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이다. 혐한류의 발생원인과 형태는 시기나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근저에는 한류에 대한 반감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감이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민족에 대한 혐오감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일본 사회 일부에서 논의되던 혐한의식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

7) 2ちゃんねら: 2ch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의 통칭. ‘VIPPER’, ‘ねら一’, ‘ちゃねら’라고 부르기도 한다. [http://d.hatena.ne.jp/keyword/\(2008년 12월 10일 검색\)](http://d.hatena.ne.jp/keyword/(2008년 12월 10일 검색)).

건, 2004년의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일본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2ch의 한글게시판이나 극동아시아 뉴스 게시판 혹은 거기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많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바탕으로 한 보수파 잡지 및 미디어의 언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은 『혐한류』의 발간 이후 여러 사이트에 급속히 전파되어 한중일 3국간의 외교마찰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혐한류』는 아마노 사린(山野車輪)이 2002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인 ‘FAR EAST-極東’에 「CHOSEN-朝鮮」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해왔던 것으로, 중국과 한국의 반일테마가 한창이던 2005년 신유사 관계자가 발굴해서 출판한 것이다(板垣龍太, 2006). 『혐한류』의 주요 내용은 한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특히 재일한국인에게 대한 ‘혐오’이다. 따라서 ‘혐-한류’라기보다는 ‘혐한-류’(板垣龍太, 2006, 409쪽)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의 내용들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교과서문제, 반일 마스크 등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sup>8)</sup>)를 비롯한 일본 보수계 잡지의 주장과 유사하며, 한국과 일본의 언론 및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이 많다.<sup>9)</sup>

서구적인 용모의 멋진 일본인과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추한 모습의 재일한국인, 용모처럼 ‘쿨’한 논법의 일본인과 불만투성이에 감정적인 재일한국인이라는 억지 설정에다 내용전개도 엉성하고 지루한 만화에 일본인들은 왜 이토록 열광할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만화라는 알기 쉬운 양식으로 쓰여진 점,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차, 한류 열풍에 대한 위화감과 반감, 북핵문제와 한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위기감, 사회 불안정에 따른 젊은이들의 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니찬네라들과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혐한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본장에서는 『혐한류』의 판매량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혐한류가 가지고 있는 일본 내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 2) 일본인들의 대한인식과 혐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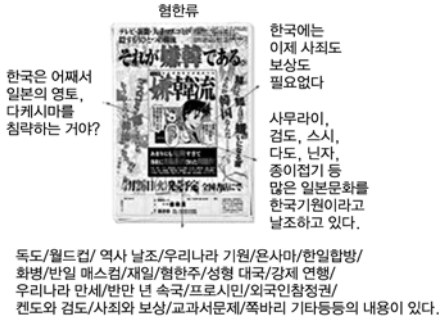
‘嫌韓’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3월이지만, 국내외적인 문제로 부상한 시기는 『만화 嫌韓流』가 발간된 2005년 이후부터이다. 일개 만화책에 불과한 『혐한류』가 국가간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화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본인들의 혐한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일본 출판계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또 일본인들의 對韓이미지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먼저 살펴보겠다.

8) 1996년 12월 2일에 발족한 ‘만드는 모임’은 교수·언론인·수필가·만화가·작가·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인 하부조직을 통해 각 현의회와 시의회 등에 군국주의 우익사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의 채택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9) 그러나 한국의 표절문제나 일본의 마스크, 외국인 참정권 등 현대사회의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계 잡지들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1) 판매량으로 본 혐한류의 영향력

『혐한류』는 인터넷 예약만으로 판매순위 1위가 되었는데 발매 당일에 이미 절판되는 등 발간 초기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혐한류의 판매량은 『슬램덩크』나 『명탐정 코난』 같은 인기시리즈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



<그림 1> 『マンガ 嫌韓流 1』  
출처: 晋遊舎 <http://www.shinyusha.co.jp>

준이다(강동국, 2006, 44쪽).<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혐한류』가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인식된 원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이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준 충격과 판매순위 선정기관의 편중(강동국, 2006, 45쪽)<sup>11)</sup>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서적의 영향력을 논할 때 함께 거론되어야 할 점은 꾸준한 판매량이다. 현재 4권까지 발간된 동서적은 발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7일 만에 20만 부, 2권까지 65만부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4권까지의 누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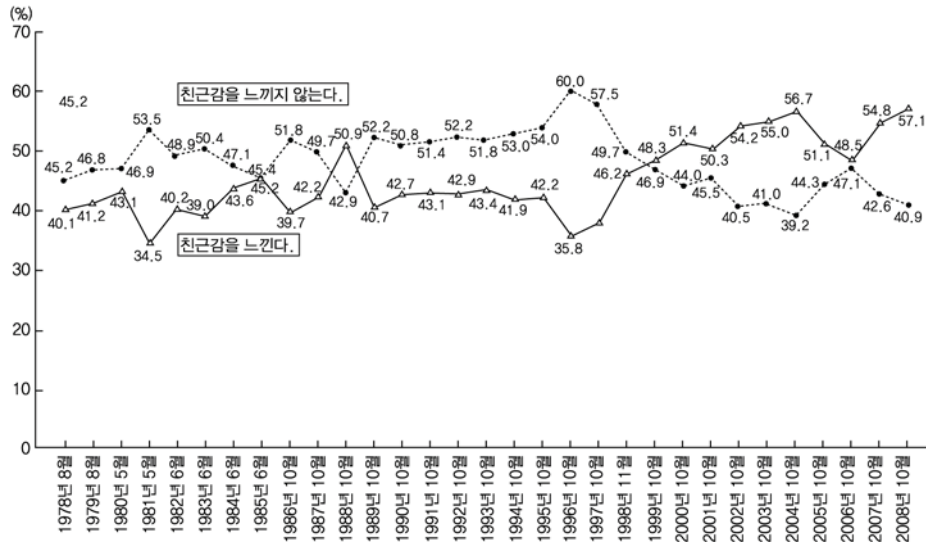
매부수는 90만부에 그쳐 초기 판매량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혐한류』가 달성한 판매고는 구매자들이 내셔널리즘적인 동기나 책 내용 자체에 매력을 갖고 구매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간의 마찰이라는 국제적인 상황과 특정판매처인 아마존만을 대상으로 한 구매촉진운동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여론조사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대한인식

<그림 2>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조사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몇몇 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고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시점 전해인 2004년에 56.7%였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2005년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8.5%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2006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08년 10월 현재 57.1%까지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여론조사를 시작한 5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위의 결과로 볼 때 『혐한류』와 일본인의 대한인식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10) 일본 출판계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만화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슬램덩크』 전 42권의 일본 국내 발행부수는 1억 6000만 권이고, 『명탐정 코난』, 『원피스』 같은 인기시리즈들도 모두 1억 권을 돌파하였다. 즉 누적판매량 90만부의 『만화 嫌韓流』는 『슬램덩크』 판매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1) 혐한류의 판매량은 일본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 재팬’ 집계에서는 7월 26일에서 8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8월 9일을 제외하고 5주 동안 판매량 1위를 차지하였지만, 또 다른 대형서점의 하나인 기노쿠니야(紀伊國屋) 서점에서는 2위에 그쳤고, 일본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樂天)에서는 첫 주인 7월 26일 외에는 한번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즉, 한국과 일본의 기사들은 한 곳의 기록만 인용함으로써 혐한류의 판매량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림 2>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平成20年10月, 2008년 10월)  
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알 수 있다. 먼저 『협한류』의 발간시기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저하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이미 200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음에 비해 협한류는 1년 후인 2005년 7월 26일에 발간되어 둘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무방할 것이다. 만약 협한류의 발간이 한국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면 협한류 3권이 발간된 1달 후 발표된 2007년의 결과도 당연히 낮게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7년의 조사결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협한’ 내지 ‘협한류’ 현상은 일본 전체의 對韓이미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론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확실히 파악된다. <표 1>과 <표 2><sup>12)</sup>를 보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40~50대의 여성보다 30~40대의 젊은이와 남성 쪽의 친근감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각부의 또 다른 여론조사인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문화적인 교류와 친근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30~40대 남성들은 2ch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연령층은 공교롭게도 2ch의 주 이용자층<sup>13)</sup>과 협한류의 주 독자층(板垣龍太, 2008)<sup>14)</sup>

12)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6~2008년)’ 중 성별·연령별 친밀감만 따로 정리하였다.

13) ‘日本廣告主協會Web廣告研究會’(<http://www.wab.ne.jp>)에 따르면 2ch의 이용인구는 2008년 9월 시점에서 3,783만 명, 연령 구성은 10대까지가 12.2%, 20대가 15.1%, 30대가 28.5%, 40대가 26%, 50대가 9.6%, 50대 이상이 4.7%이다. 출처: [http://www.wab.ne.jp/topics/post\\_3.html#pagetopAnc](http://www.wab.ne.jp/topics/post_3.html#pagetopAnc) 검색일 2009년 1월 20일.

14) 협한류의 독자는 남성이 66.6% 여성이 33.3%로 남성이 더 많다. 연령은 30~49세가 42.4%, 19~29세가 37.5%, 10대가 3.6%이다.

과도 겁친다. 2ch에서 혐한현상을 주도하는 연령층의 대한 친근감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의미를 2ch 게시판의 분석과 4대 일간지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추적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에 대한 친근감(성별)

성별/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남성	50.6	55.3	62.1
여성	46.7	54.2	62.1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6~2008년) ‘한국에 대한 친밀감’  
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표 2> 한국에 대한 친근감(연령별)

연령/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29세	50	64.4	61.2
30~39세	54.1	67.1	63.3
40~49세	57.9	58.7	63.5
50~59세	49.8	52.1	58.6
60~69세	45.2	49.1	52.9
70세 이상	39.4	43.9	46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06~2008년) ‘한국에 대한 친밀감’  
출처: 일본 내각부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 4. 2ch와 혐한류

##### 1) 2ch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2ch는 게시판의 수(松村眞宏·加藤優·大澤幸生·石塚満, 2004, 1053쪽)<sup>15)</sup>나 히트율면에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게시판으로 신변잡기식 수다에서부터 전문가를 상회하는 수준 높은 게시물이 병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Japan Access Rating’사의 200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메인과 히트율면에서는 국내 4위를, 커뮤니티게시판 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고, 하루 접속건수만 해도 2억 회에 이른다. 구글과 야후 재팬이 2002년 12월에 발표한 검색키워드 1위(松村眞宏·加藤優·大澤幸生·石塚満, 2004, 1054쪽)도 모두 ‘2チャンネル’였다. 그러나 『電車男』<sup>16)</sup>을 제외하면 일본 내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5) 松村眞宏가 2002년 행한 조사에 따르면 2ch에는 35개의 카테고리과 442개의 게시판이 있었다. 또 각 판의 톱 페이지에 나타난 화제(스레드)는 전부 6,017개였고, 오래된 것까지 합치면 166,610개였다.

16) 전차남이라는 아이디어의 남성이 2004년 3월 14일부터 2ch의 독신남성판에 게재한 글을 바탕으로 한 실화소설이다. 2005년 동명의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2) 2ch의 특징

2ch의 특징은 익명성과 주제의 다양성, 2ch만의 정형적인 표현기법이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다. ‘사용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해 게시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접속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IP주소나 포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주제가 다양하고 게시판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이다. ‘해킹부터 오늘 저녁반찬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듯이 2ch의 게시판은 ‘스포츠’, ‘취미’, ‘정치·경제’ 등 다양한 화제(스레드)들이 600여 개의 카테고리에 마련되어 있다. 셋째, ‘2ch 용어’와 ‘아스키아트’<sup>17)</sup> 같은 2ch만의 독특한 언어양식이 있다는 점이다. 독특하고 다양한 조어법(松村眞宏·加藤優·大澤幸生·石塚満, 2004, 1055쪽)<sup>18)</sup>에다 독자적인 문법까지 갖추고 있어서 2ch어 사전인 『2典』<sup>19)</sup>을 참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 3) 2ch의 대한인식과 혐한류

『만화 嫌韓流』의 진원지로 알려진 2ch의 주 이용자층은 극우성향을 가진 10~30대의 젊은 남성이 주류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나 아소 타로(麻生太郎)처럼 보수 우익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아시아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및 북한, 제일 한국인등 한민족에 대한 혐오감과 차별의식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혐한게시물을 일삼는 이용자를 가리켜 켄칸쥬(嫌韓廚 혹은 廚)<sup>20)</sup>라 하는데, 이들은 ‘츱’(チョン)<sup>21)</sup> 같은 차별용어 외에도 한국인을 폄하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 오락거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종 혐한캐릭터들과 신조어들은 일본 네티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본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혐한내용의 사이트들의 각종 반한선동선전 및 허위 정보들의 원천이 되는 등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한 경향은 ‘혐한류’를 표방한 관련서적들의 출판러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17) 아스키아트(ASCII Art)는 아스키코드의 문자와 기호로 그린 작품이다. 텍스트아트, 문자그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AA로 줄여 부른다. 주로 2ch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전자게시판에서 사용되고 있다.

18) ‘がいしゅつ’와 ‘氏ね’처럼 일반적인 말을 독자적인 의미로 사용하거나 닳은 문자로 바꿔 쓰기, 생략, 동음치환, 외국어와 섞어 쓰기 등 조어법이 다양하다.

19) 2ch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는 사전으로 홈페이지는 <http://www.media-k.co.jp/jiten>이다.

20) 쥬는 쥬보(廚房)의 줄임말로 유치한 게시물이나 발언을 일삼아 게시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한국어의 ‘중당’에 해당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초당’에 가깝다.

21) 한국이나 한국인을 모멸하는 말. 이 단어의 어원은 조선(일본표기: ちょうせん, chousen)의 단축형이란 설이 일반적이지만 チョン公(chonkou)이라고도 불리며 그 단어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설도 있다. 1. 한국의 미혼 남성을 일컫는 단어 ‘츱각’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와전 되었다는 설, 2. 조선고교생(朝鮮高校生, chousen koukou-sei)의 축약형이라는 설. 출처: <http://kukuri.tistory.com> 검색일 2009년 5월 2일.

## 5.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만화 嫌韓流』가 등장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2ch의 혐한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과 일본 4대 일간지의 기사이다. ‘nida’<sup>22)</sup>를 비롯한 여러 게시판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고 여론조성의 피드백자료도 가장 많다. 또 Link Free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접근과 자료수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내용을 전제, 복사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운영원칙을 세우고 있어서 이 사이트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신문이 가지는 영향력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인구 천 명 당 634.5부의 신문이 소비되는 세계 제 2위 신문소비국가(日本新聞協會編輯, 2007)<sup>23)</sup>이며, 발행부수 세계 4위<sup>24)</sup>까지의 신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신문대국이다. 조사대상 일간지인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産経新聞』은 부수와 영향력 면에서 일본신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념면에서도 큰 차이(강준만, 2001, 35쪽)<sup>25)</sup>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대한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분석 자료 중 신문기사는 ‘혐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2ch는 ‘혐한류와 한류’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127곳<sup>26)</sup>의 게시판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글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게시판 1곳과 한류게시판 1곳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분석대상은 한류와 한류게시판의 게시글 517건(혐한류 243건, 한류 274건)과 신문기사 135건(朝日新聞 53건, 毎日新聞 13건, 讀賣新聞 9건, 産経新聞 58건)으로 총 652건이다.

### 2) 분석방법과 분석항목

일본인들의 대한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을 민족관과 국가관, 역사관, 문화관의 네

- 
- 22) ‘니다게시판’(love6.2ch.net/nida)은 2ch 사이트의 대표적인 혐한(嫌韓)게시판이다. 사이트명 ‘니다’는 한국어의 어미 ‘~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부 일본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23) 각국별 일간지의 인구 1000명당 부수는 각각 아이슬란드(795.7), 일본(634.5), 네델란드(626.3), 스웨덴(583.4), 핀란드(518.4) 순이다.
- 24) 2003년 현재 『요미우리신문』(1,440만부) 세계 1위, 『아사히신문』(1,240만부) 세계 2위, 『마이니치』(568만부) 세계 3위, 『니혼게이지』(480만부) 세계 4위. 신문발행 부수의 여러 기록들, 출처 <http://blog.naver.com/kyckhan>
- 25) 일본 정보 과학연구회 대표인 ‘아마모도 히게노리’는 일본 5대 신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1) 좌경숙고형(左傾熟考型)의 朝日新聞: 숙고하는 버릇과 깊이 있는 비판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이 특징.
  - 2) 박식동조형(博識同調型)의 讀賣新聞: 친정부적인 성향의 신문.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 3) 천광상식형(淺廣常識型)의 『마이니치신문』: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평범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
  - 4) 우경주장형(右傾主張型)의 産経新聞: 우경주장형이고 설득적인 논조가 특징.
  - 5) 객관정보형(客觀情報型)의 日経新聞: 경제전문지로서의 성격을 탈피한 경제계의 일반지. 과학기술면의 해설이 압권. 아마모도 히게노리 저, 정탁영 역, 『자기색깔 고집하는 일본 전국지』, 『바른 언론』, 1996. 9. 강준만의 책에서 재인용.
- 26) 혐한류 게시판 49곳, 한류 게시판 78곳.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분석의 대상이 신문기사와 게시판의 글이어서 단일한 항목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항목의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가장 대표적인 내용 한 가지만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항목과 판단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항목

분석항목	분석내용
민족관	한국과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민족에 대한 이미지
국가관	한국이라는 국가자체에 대한 이미지와 국가가 시행한 정책에 대한 이미지
역사관	한·일간의 역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이미지
문화관	한국문화 및 한류와 협한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표 4> 판단지표

세부기준	판단지표
1(긍정)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적극 표시하거나 인정하는 내용
2(약간 긍정)	한국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긍정하는 느낌의 내용
3(약간 부정)	한국을 절대적으로 멸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소 부정적인 느낌의 내용
4(부정)	한국을 절대적으로 멸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의 내용

## 6. 연구 결과

### 1) 2ch에 나타난 협한류

#### (1) 각 게시판의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협한류의 진원지로 알려진 2ch 사이트의 협한류 게시물과 한류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법을 분석해 봄으로써 협한류와 한국에 대해 일본 젊은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고찰해보겠다. 협한류 게시판과 한류 게시판에 나타난 대한인식<sup>27)</sup>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협한류 게시판은 내용면에서도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교과서 문제’, ‘한일합방’의 당위성 등 『협한류』에 나타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협한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협한류 게시판에서 긍정적인 대한인식이 다수(18%) 발견되었다는 점과 한류 게시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52%)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으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각 항목의 내용을 분석해 나가면서 함께 탐색해보겠다.

27) 협한류 게시판은 대한인식은 총 243건 중 부정적인 대한인식 82%(200건), 긍정적인 대한인식 18%(43건)이었고, 한류 게시판의 대한인식은 한류 게시판(274건): 부정적 52%(142건), 긍정적 48%(132건)이었다.

&lt;표 5&gt; 2ch의 한류 게시판과 혐한류 게시판 분석

점수/구분		문화관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합계	비율
		혐한	한류	혐한	한류	혐한	한류	혐한	한류		
긍정	1(긍정)	14	71	0	2	0	0	3	0	90	17.0%
	2(약간 긍정)	18	55	6	2	0	1	2	1	85	16.5%
부정	3(약간 부정)	51	50	21	8	2	4	3	1	140	27.0%
	4(부정)	48	40	57	22	6	10	12	2	202	39.5%
합계(건)		131	216	84	34	8	15	20	4	517	100%

\* 지면의 제약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문화관'(다른 항목도 동일)으로 나타내었고, 혐한류 게시판은 '혐한'으로 한류게시판은 '한류'로 나타냈다.

### ① 혐한류 사이트 분석결과

#### 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혐한류 게시판에서 가장 많았던 항목은 문화관(243건 중 131건)으로 이 항목에는 혐한류와 한류에 대한 의견이나 정보를 언급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혐한류에 대한 평가는 예상대로 호의적(36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22건: 혐한류 14건, 혐한류 8건). 한류(한류 15건, 한류스타 4건)에 대한 비난과 혐한류의 발간소식과 내용, 목차 등을(12건) 소개한 글도 자주 등장하였다. 이 밖에 『만화 嫌韓流』가 베스트셀러인데도 중앙일간지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게재되었으며, 일본인을 비난하거나 헌법 개정을 비난하는 내용 등 게시판의 내용과 상관없는 글도 있었다.

가장 많았던 내용은 만화 내용에 공감하거나(‘바른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면 상식의 범위’), 만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덴츠(電通)<sup>28)</sup>가 재일한국인과 좌익, 민주당과 합세하여 한류붐을 날조하고 매스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이다. 하지만 ‘혐한류에게서 돈 벌려는 수작’, ‘한국을 싫어하는 인간은 ‘에로게오타’<sup>29)</sup>’, ‘네트우요의 선동에 깜빡 속은 오타쿠들’, ‘혐한류의 목적은 일본국민의 눈을 과거로 돌리려는 것’, ‘역량 있는 사람은 혐한류에 혹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과 ‘한류붐의 지속이 일본경제를 원기 있게 한 것임에 틀림없다’, ‘과장, 왜곡, 날조의 퍼레이드가 혐한분위기를 부채질하여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고 있는 두 민족의 친목을 갈라놓는다. 불모한 혐한 반일은 그만!’ 등의 반론도 36건이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 나. 한국에 대한 인식

국가관련 내용에서는 독도와 대마도의 영토분쟁(21건)과 한국의 반일감정(반일 영화 11건, 역사

28) 株式会社電通(でんつう, Dentsu Inc.)는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로 1901년 미즈나가 호시오(光永星郎)가 설립한 ‘日本廣告’가 전신이다. 88올림픽에서 후원한 것을 인연으로 한류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혐한론자에게 공격받는 빌미가 되었다. 홈페이지는 <http://www.dentsu.co.jp>

29) 에로틱게임에 심취한 사람. 에로게(일본어: エロゲー)는 영어 ‘erotic game’을 일본식으로 줄인 말이다. ‘어덜트 게임’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 성인 취향의 성적 표현을 하는 영상, 음성이나 이야기를 게임 형식으로 엮어낸 소프트웨어의 총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야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소녀 게임과 유사하지만, 그 범위나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4건),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비난(한국사회 후진성(8건)과 성형(4건), 납치문제(4건), 역사날조(3건)와 일본문화 표절(3건) 등이 있었다.

이 항목에는 교과서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의 국조인 핑을 산채로 죽이는 HID(특수임무수행자회)의 퍼포먼스 등 섬뜩한 내용과 영상, 대마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자는 김원웅 의원의 발언 등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독도관련 내용이다.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내용과 일본령이라는 내용이 혼재하였다. 흥미롭게도 ‘다케시마(竹島)’라고만 표기한 게시물에는 자국의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 담겨져 있는데 비해, ‘竹島(韓國名·獨島)’처럼 병기한 것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독도문제는 협한류 1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또 영토문제는 특별히 내셔널리즘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이다. 협한류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한류 게시판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일본 사회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협한류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다. 한국 민족에 대한 인식

이 항목에는 한국인에 대한 느낌과 인상,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 분석해보았다. 한국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한국인과 재일조선인, 북한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협한류 게시판과 한류 게시판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보다 재일한국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협한류 게시판의 민족관련 내용(8건)<sup>30)</sup>은 모두 재일한국인 관련 내용이었다. 일본인이 7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 연행한 사실을 사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일한국인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과 멸시감이 가득했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불법입국해서 살면서 각종 범죄와 불법(파칭고, 불법사채, 통일교)을 자행하는 주제에 참정권과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뻔뻔스러운 사람, 일본에 기여한 것 없으면서 생활보호비와 교육 등 갖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알미운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게다가 재일한국인으로 여겨지는 야쿠자와 사채업자, 파칭코업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사민당, 통일교 창가학회, 언론(특히 『아사히신문』), 덴츠도 ‘매국자이니치’<sup>31)</sup> 대열에 포함시켜 함께 비난하는 행태는 『협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카하라가 말한 고용불안정과 중간층의 동요에 의한 개인적인 불안이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혐오감과 공격성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 라.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관에는 절대적인 부정의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이 항목에는 크게 자국의 역사교육에

30) 민족관은 거의 대부분의 게시물에서 고루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두드러진 내용만으로 항목을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8건만 추출하였다.

31) 자이니치(在田)는 재일한국인을 뜻한다.

대한 비판(5건)과 종군위안부문제(5건), 한국역사에 대한 왜곡(5건) 등 총 20건이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종군위안부문제와 자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세대의 머릿속에는 전쟁을 한 일본이 나쁘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사죄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라는 비판을 포함해 ‘종군위안부는 사실 돈 벌려고 자진해서 나온 매춘부들이므로 일본이 사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조선인은 과거에 일본을 침략하여 대마도민을 학살하였다’ 등 혐한류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5건<sup>32)</sup>이나 존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일부이긴 하지만 니찬네라들도 만화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기타(민주당 및 언론에 대한 내용)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언론지(특히 『아사히신문』)에 대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sup>33)</sup>이 많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역사 등의 이미지 등 여러 항목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특히 제일 한국인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참정권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니찬네라들은 중국과 한국의 앞잡이, 독도와 대마도를 한국에 넘기려하는 ‘매국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 ‘민주당이 반체제 사상을 지닌 국회의 원이나 한국 국적으로부터 귀화한 의원을 거느리고 있다’, ‘진보적인 언론사인 ‘朝日新聞’과 ‘TV아사히’, ‘TBS’ 등에 다수의 제일 동포들이 포진해서 편향방송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불안감과 불만의 원인을 외부(혹은 외부에 협조하는 내부인)에 돌림으로써 해소하려는 심리의 발로로 여겨진다. 또 사회불안이라는 요소를 타국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일본 우파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 ② 한류 게시판 분석결과

다음으로 한류 게시판의 내용을 분석해보겠다. 한류 게시판인 만큼 한류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고(274건 중 216건, 78%) 한류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216건 중 126건, 58%). 하지만 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의 논조와 내용은 혐한류 게시판과 유사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관의 논조 85%와 민족관의 논조 67%가 부정적이었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혐한류 만화와 게시판에서 볼 수 있었던 독도문제와 제일 한국인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현저하였다. 그러면 각 항목별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32) 역사적인 사실과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거침없이 뽑아내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언행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는 비판(1건), 지금 세대인 단카이(団塊, 2차 대전 후 베이비붐시기에 탄생한 일본인)세대는 남경학살의 장본인이라는 주장(1건), 종군위안부문제와 과거사문제에 관한 기사를 한데 모아 그 오류를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2건).

33) 민주당 관련 내용 18건과 언론 7건, 정치인 6건, 좌익 4건, 사민당 2건, 창가학회 1건.

### 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이 항목에는 한류게시판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112건과 한류스타와 한류 관련 소식을 전한 54건(한류스타 23건, 드라마 소개 21건, 한류 20건), 한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36건 있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한국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을 링크하거나 복사하여 옮긴 것이어서, 일본어만 아니면 한국의 게시판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한국의 연예정보와 한류스타의 동정이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게 게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호응도도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관심의 대상도 다양하여 ‘비사마<sup>34)</sup> 올 여름 전국투어’ 같은 콘서트 정보를 비롯하여 배용준, 류시원, 문근영 같은 한류스타의 최근 동향 등 연예인 정보와 ‘파리의 연인’, ‘대장금’, ‘상도’ 같은 드라마를 소개한 내용도 있었다. 또 ‘한국 드라마 전 세계에서 대히트 & 초고시청률 획득’같은 극찬의 말도 자주 눈에 띄었다.

하지만 찬사의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류 붐은 일본전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조선에 대한 증오 균형을 취하려는 행동의 결과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기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것도 신경 쓰이고...’라며 한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 ‘이 게시판의 주인은 한류에 혹해서 머리가 돌아버렸다’, ‘한류붐은 자이니치와 덴츠가 날조한 것’, ‘한류=오바타리안<sup>35)</sup>’, ‘한국 드라마는 재미없다’, ‘한류! 여기서 썩 꺼져’ 등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낸 게시물도 90건이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류’의 양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되어왔다. 이 같은 ‘혐-한류’의식은 전 매스컴이 한 목소리로 ‘한류’와 ‘한국’을 찬양하는 분위기에 대한 위화감(고길희, 2007, 4쪽)에다 한류 붐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본인들이 한국의 기사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반일운동과 반감과 마주 대하게 되면서 느낀 당혹감,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게 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나. 한국에 대한 인식

국가관을 나타내는 항목에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문제가 13건, 한국의 대일인식과 반일 감정이 7건, 매춘대국, 역사날조 등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10건 있었다.

국가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았지만 ‘일한우호! 일한우호’ 같은 문장을 포함해서 ‘일본인은 예전에 나쁜 일을 했으니 영토를 양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케시마는 한국 땅 같아. 제2차 대전 후 영토를 결정할 때 연합국 측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다.’같이 2ch의 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과격적인 내용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가장 많았던 내용은 역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국교단절! 국교단절!’, ‘대마도를 뺏기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한국 드라마 따위를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침략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한국은 적국’처럼 선동적인

34) 비사마: 배용준을 지칭하는 ‘ヨンさま’(온사마)처럼 가수 ‘飛(비)에 사마(さま)라는 극존칭을 붙였다.

35) 오바타리안: 이쥬미를 뜻하는 오바사(おばさん)과 바타리안(バタリアン, 영화제목)의 합성어로 추태를 부리는 이쥬미를 뜻한다.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 게시판에 나타난 국가관도 혐한류 게시판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였다. 한류 게시판의 사용자와 혐한류 게시판의 사용자가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대부분이 한국이나 일본의 기존 미디어에서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니찬네라들의 대한인식 형성에 미디어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한국 민족에 대한 인식

민족관의 내용에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내용이 10건, 한국에 대한 내용이 2건, 북한에 대한 내용이 1건으로 재일 한국인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혐한류 게시판의 이미지와 거의 유사하다. 즉 일본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인인 척 하면서 정치적 모략을 일삼는 공작원, 강제연행되어 온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밀입국한 사람이 더 많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특히 니찬네라들이 재일 한국인에게 우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아사히신문』의 재일한국인 폭로 기사를 여러 차례 인용함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려는 점도 눈에 띈다.

#### 라.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한·일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4건밖에 없었지만 긍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일본은 이찌조선의 노예를 해방시켰다’처럼 한국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인식 외에도 최근의 대만의 교과서에 나타난 위안부의 기술을 비판하면서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해 매춘부 혹은 매춘업자가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혐한류 2』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양이다’라며 혐한류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었다. 이처럼 게시물의 내용만 보면 혐한류 게시판의 내용으로 착각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혐한류 게시판에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이 5건(총 20건)이나 실린 데 비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 ③ 표현방법

#### 가. AA(아스키아트)

‘AA’ 혹은 ‘문자그림’이라고도 부르는 아스키아트는 주로 2ch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전자게시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 2ch를 특징짓는 문화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AA를 이용한 소설작품이 성행하고 있을 정도로 문자그림의 사용이 빈번하고 표현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혐한류 게시판과 한류 게시판에 사용된 아스키아트는 각각 32건과 13건으로 게시물 전체 수에 비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45건 모두 부정적인 내용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의 인터넷문화와 혐한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비난의 내용은 한국 민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내용 12건, 외국인참정권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내용 12건과 영토분쟁 관련내용 5건이었다. 재미있게도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29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난하는 내용<sup>36)</sup>(4건)도 있었다. 게시판의 특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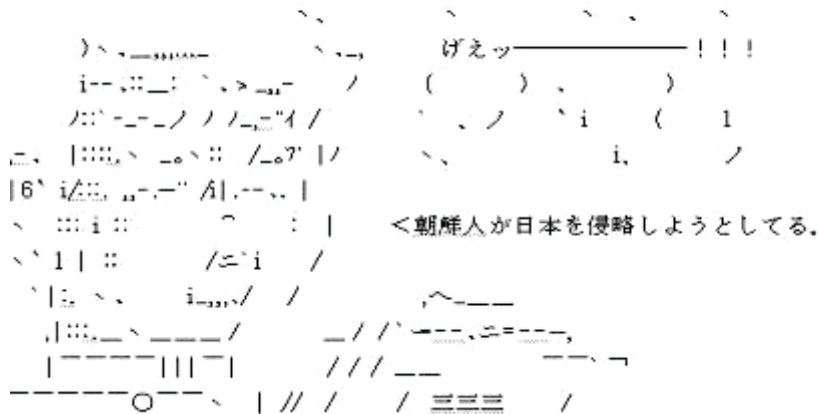
36) 비난의 내용은 ‘네트우요선동에 놀아나는 오타쿠’, ‘일본침몰’, ‘냉동만두사건은 일본인의 잘못’, ‘넛또 뱀새가



게시자의 국적확인인 불가능하지만 혐한류 게시판에 일본을 비난하는 아스키아트가 게시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10 : 名無しさん@お腹いっぱい。 : 2005/07/31(日) 09:56:30 ID:uPyMqil1  
>>8

石原氏が正論を言ったことに対して、バカチョンや左翼のアホが文句言ってるね。



<그림 3> 아스키아트  
출처: 2ch의 50代のおっさんは「マンガ嫌韓流」讀んだ? 게시판

#### 나. 인용방법과 빈도

양 게시판의 내용에는 인용 글과 링크된 게시물이 상당히 많았다. 인용 대상은 신문기사와 방송, 기타 영상 등 다양했고,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게시물을 인용<sup>37)</sup>하였다. 인용 글들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순히 신문사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많았다. 또 신유사와 ‘뉴스 2ch’의 게시물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문사와 방송사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었다. 이것은 부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니찬네라들의 이러한 행동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 신문사와 방송사 같은 기존 미디어의 기사를 정보원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인터넷에

진동하는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싫은 존재'이다.

37) ·타 게시판 링크 - 신유사, 아마존, 뉴스 2ch

- 신문사 링크(일본, 한국, 미국 등)
  - 혐한 게시판이 인용한 신문: 『도쿄신문』, 『뉴니치』, 『워싱턴포스트』
  - 한류 게시판이 인용한 신문: 『조선일보』 3건, 『요미우리』, 『산케이』, 『마이니치』, 『아사히』 등
- 방송 및 영상 링크 - 일본, 한국, 미국, 영국
  - 혐한 게시판이 인용한 영상: 영국 유튜브, mbc, kbs, 해상보안청, 통일평론
  - 한류 게시판이 인용한 영상: TV 요코하마, 스포츠 닛폰

떠도는 혐한현상의 뿌리는 기존 미디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상의 ‘미디어 내셔널리즘’ 현상을 우려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다. 기타

게시판과 관련 없는 내용과 숫자들이 게시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처럼 네티즌 상호간의 다이내믹한 소통은 전혀 없었다. 댓글 62건<sup>38)</sup> 중(혐한 게시판(37건), 한류게시판(25건)) 적극적인 반박이나 찬성의 댓글은 거의 없었다. 제시된 댓글도 그 글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반대의 뉘앙스가 약간 포함된 정도였으며 한국의 댓글처럼 뜨거운 찬반논의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이 게시판에만 있는 현상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보야 알겠지만 한일 네티즌들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류 게시판의 ‘기타’ 게시물 총 229건 중 숫자놀이가 159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의미 없는 게시 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놀면 재미있나?’라는 댓글 3건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항의나 조롱의 글은 전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바깥사회에서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자와 숫자를 나열하고 감상함으로써 소속감을 재확인하고 즐기는 일종의 놀이형태로 보인다.

이상으로 2ch 게시판의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한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게시물의 내용 대부분은 한국인을 비하하고 비난함으로써 일본인의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하거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게시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이 니찬네라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 즉 선정적이면서도 특이하고, 신기한 내용 등 화제꺼리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올려 잡담하는 것이었다. 일견 무가치해 보이는 내용도 화제의 대상으로 올라와 게시판의 한 부분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게시판의 내용은 자신의 의견이나 지인에게 들은 내용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이 기존 미디어나 타 게시판의 내용을 옮기거나 링크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타다 아키히로(北田曉大)는 니찬네라들의 이러한 행동을 본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내부공간을 묶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분석하고 있다. 즉, 니찬네라들은 타인과의 연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ch에서 내셔널리즘이 확산되는 이유는 니찬네라들이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셔널리즘 자체가 감동의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北田曉大, 2005). 기타다의 분석은 2ch의 내셔널리즘이 가지는 특징과 원인을 잘 분석했다고 여겨진다. 또 혐한류 사이트에서 『혐한류』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인 대한인식이 18%나 나타났다는 점은 기타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게다가 혐한류 게시판이 2ch의 게시판 166,610개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일본 젊은이들의 우경화라기보다 2ch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문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8)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게시 글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게시물이어서 일본인의 대한관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혐한 게시판(14건 중 숫자가 1건, 관계없는 내용 2건, 의미 없는 문자 1건, 아무것도 없는 게시물이 2건, 링크가 끊어진 게시물 5건, 중국관련 2건)이고, 한류게시판(전체 229건 중 숫자놀이가 159건, 아무것도 없는 게시물 17건, AA 3건) 예) 二國(259), 샌드위치GETT(242, 252 등), 連番GETT(234) 등이다.

## 2) 미디어에 나타난 혐한류

‘嫌韓’이라는 용어는 1992년 『마이니치신문』에 처음 등장<sup>39)</sup>하여, 이후 그다지 등장하지 않다가 2005년(62건)과 2006년(37건), 1998년(33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한일관계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嫌韓’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던 2005년은 광복 6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40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였지만, 다른 어느 해보다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1월 중순 한국정부가 과거의 한일회담에 관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불협화음은 시마네현(島根縣)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역사교과서문제를 계기로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양국의 여론은 상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경색되어갔고, 때마침 발간한 『혐한류』는 여기에 편승한 내용과 마케팅전략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면 일본의 4대 일간지에서 혐한류가 어떻게 논의되었으며, 2ch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 (1) 혐한류의 비중

먼저 ‘혐한’이 들어간 기사는 몇 건이었으며 어느 지면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사 중 ‘혐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총 135건<sup>40)</sup>이었다. 이것을 지면별로 분류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혐한류의 비중

신문/분야	독서	국제	오피니언	문화	종합	특집	사회	사설	정치	해설	합계
朝日新聞	37	1	2	5	1	3	1	2	1	0	53
讀賣新聞	5	0	1	0	0	2	0	1	1	0	10
毎日新聞	6	2	1	1	0	0	1	0	1	1	13
産経新聞	17	18	10	5	7	0	2	0	0	0	59
합계(건)	65	22	14	10	8	4	4	3	3	1	135

혐한이라는 단어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독서란을 비롯하여 국제면 오피니언란, 문화란 여러 지면에 고루 소개되었다.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은 각각 59건과 53건의 혐한류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책 소개(『아사히』 37건, 『산케이』 17건)와 국제란(『산케이』 18건)에 편중되어 있다. 독서란에는 『혐한류』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서적과 일본

39) 小川郷太郎<駐韓日本大使館公使>(1992년 3월 4일) 『[私見直言] 日韓の歴史認識にギャップ=』, 『毎日新聞』東京朝刊社説5頁.

40) 『산케이신문』 59건, 『아사히신문』 53건, 『마이니치신문』 13건, 『요미우리신문』 10건.

내의 혐한현상을 분석한 신간도 함께 소개되었다. 『아사히신문』<sup>41)</sup>은 총 37건의 혐한관련 서적을 소개했는데, 특히 『혐한류』에 관한 기사만 해도 21건이나 된다. 이것은 진보지가 『혐한류』의 광고를 거부하였다는 2ch 게시판의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산케이신문』의 경우 국제란과 독서란, 오피니언란, 종합란, 문화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국제란에는 ‘위도경도’, ‘외신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 ‘북경춘추’ 같은 고정칼럼의 기사 14건과 한국과 중국의 최근동향 3건, 일본의 중국과 한국을 혐오하는 만화의 유행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 1건이 실려 있다. 베스트셀러를 소개한 독서란과 비평이 담겨있는 ‘문화’란에서도 혐한류의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가 함께 실렸으며, 종합면에도 한국의 반일감정과 중국의 혐한류현상을 게재하였다.

그런데 기사의 절반 정도가 독서란(135건 중 64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것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사임을 감안한다면 그 비중은 더욱 작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독서란에의 편중은 4대 신문 모두에 나타났다. 게다가 사실과 특집기사 몇 건을 제외하면 500~700자 정도의 짧은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깊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혐한보도의 특징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기보다 기사가 현저하게 많았던 두 신문의 사실과 해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편이 일본신문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혐한류의 논조

신문기사의 논조는 그 기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독서란의 경우 책 이름만 소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혐한류 현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나머지 69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69건의 기사 내용을 분류해보면 혐한류 현상과 한류현상을 다룬 기사가 36건, 한국의 영토문제이나 사회분위기를 다룬 기사가 39건, 역사관련 기사 3건, 민족관 관련 기사 1건가 있었다. 신문의 전체적인 논조는 긍정적인 논조가 55%, 부정적인 논조가 44%로 긍정적인 논조가 10% 높았다. 이것은 2ch 혐한류 게시판의 논조와 크게 대비된다(긍정적 18%, 부정적 82%). 게다가 기사의 내용자체가 혐한현상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기사여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긍정적인 논조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신문의 전체적인 논조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가장 극우적이라 여겨지는 『산케이신문』과 다소 우파적이라 여겨지는 『요미우리신문』에도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 내용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어있었다. 이것은 2ch의 시각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신문의 내용은 대체로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제를 위주로 국가·문화·민족·역사 항목으로 분류해보았다. 그러면 각 항목의 논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41) 혐한류를 처음으로 소개한 신문은 《요미우리》(『讀賣新聞』(2005.08.03.),[週間ベストセラー] 総合「マンガ 嫌韓流」が1位, 東京夕刊 6頁(全412字))이지만,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아사히신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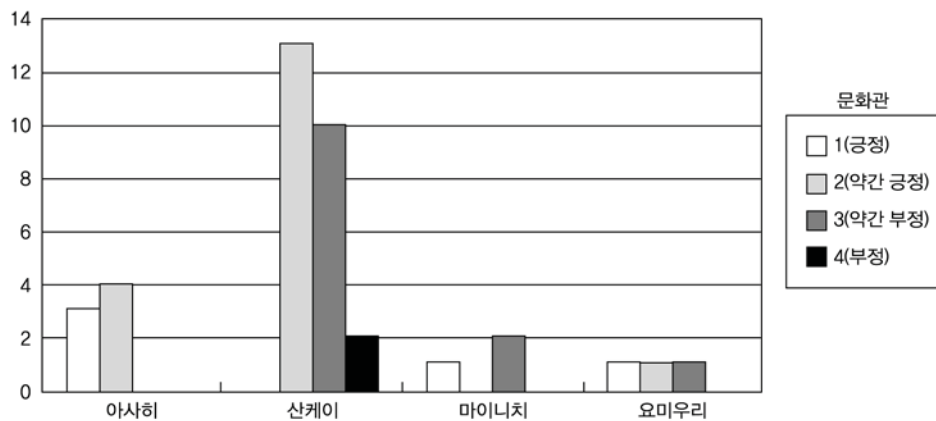
<표 7> 혐한류의 논조

논조/구분	문화관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합계	비율	
	朝	産	每	讀	朝	産	每	讀	朝	每			
긍정	1(긍정)	3		1	1	4	2	1		3	1	16	23%
	2(약간 긍정)	4	13		1	2	1		1			22	32%
부정	3(약간 부정)		10	2	1		7	1	1			22	32%
	4(부정)		2				7					9	13%
합계(건)		7	25	3	3	6	17	2	2	3	1	69	100%

\* 표의 ‘朝’는 『아사히신문』, ‘産’은 『산케이신문』, ‘每’는 『마이니치신문』, ‘讀’는 『요미우리신문』이다.

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림 4>은 한국 문화에 대한인식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4>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이 항목에는 일본과 중국의 한류와 혐한류 현상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극복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마이니치신문』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대장금에 감동’<sup>42)</sup>에는 일반인이 한류현상을 바라본 이미지와 혐한류가 된 원인, 한국 드라마를 실제 접한 후의 감상이 잘 나타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겨울연가의 히트로 시작된 한류붐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한국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 문화수출에 의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지만, 역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존재감이 증가하여 그것과 관련한 혐한현상도 과열되었다”(讀賣新聞, 2007.11.20)며 한류현상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의 ‘불일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혐한현상은 “일찍이 식민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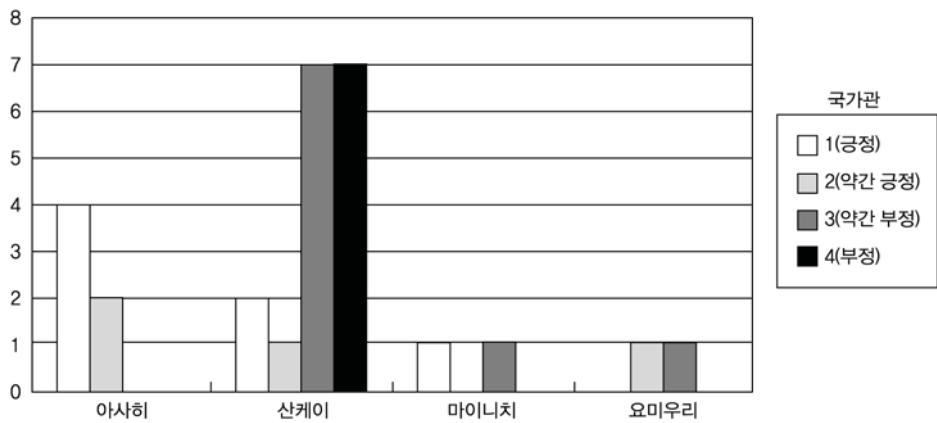
42) (2005.11.09), 『毎日新聞』, ‘『チャングムの誓い』に感動’, 독자는 겨울소나타의 한류열풍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반일테모를 보고 혐한주의자가 되었다는 독자가 대장금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장금이의 자취를 찾아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한 조선인에 대한 혐오이며, 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일본의 국민주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朝日新聞, 2006. 9. 11)하며 일본인들의 새로운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

협한류 원인을 일본내부에서 찾은 『아사히신문』의 기사는 자못 흥미롭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위협당한 결과 생겨난 초조감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겨우 형성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기운에도 물을 끼얹고 말았다(朝日新聞, 2006. 1. 1)”고 비판하였다. 또 “미디어는 양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대국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가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朝日新聞, 2006. 1. 29)며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마이니치』는 협한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실었다. 버블붕괴후의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면서 급속하게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인이 역동적인 한국을 배워 주체성을 되돌리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현상이라는 오쿠라 기조(小倉紀藏)의 분석과 협한현상을 극복하려면 상대사회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여 협한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정립을 선도하였다.

②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림 5>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한국에 대한 인식

이 항목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과 영토문제로 인한 국가간 분쟁과 한국의 반일감정과 중국의 협한동향을 비롯하여 국가간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며 전체적인 논조도 2ch의 논조와 크게 차이난다. 이러한 논조는 가장 극우적이라 여겨지는 『산케이신문』에서도 나타났다. 동 신문의 오피니언 기사 10건 중 8건은 반일과 협한을 극복하기 위한 연재기사였고 나머지 두 건도 이에 대한 독자의 반응에다 『산케이신문』 한국특파원과 『동아일보』 일본특파원의 의견을 비교한 것이었다.

특히 독도문제는 한일교류가 중단되었을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4대 일간지들은 독도문제로 인해 반일감정이 분출되고 있다는 점과 독도문제 때문에 한일교류가 중단된데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교류중단이 한국을 깊이 이해하려는 선의의 사람까지 멀어지게 하고, 협한파를 부추길 뿐(毎日新聞, 2005. 4. 5)이라는 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일본의 외교정책이 아시아의 기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러한 경향은 극우신문이라고 알려진 『산케이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게 극우논객으로 인식되고 있는 구로다 카츠히로(黒田勝弘)의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혁명적으로 변했다”(産経新聞, 2005. 12. 3)는 기사를 시작으로 ‘협한’을 극복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4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협한류』의 편향적인 표현 방법과 미디어의 보도태도를 함께 비판하였다. 반면 독도문제와 수상의 야스쿠니참배문제로 한일지자체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장금’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와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의 소설이 한일관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이처럼 착종하는 한일상호문화의 이미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교류를 계속 진행시켜나가야 한다”(讀賣新聞, 2005. 12. 7)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특히 2008년 9월 8일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기사에는 협한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인 독도(竹島)문제와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상호간의 관리 즉, “‘반일’과 ‘협한’극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리는 불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합의한 것을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사히신문』은 54건의 기사 중 책을 소개한 37건을 제외하면 기사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고루 협한현상을 다루었다. 동 신문은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사설과 오피니언, 특집 기사를 게재하거나, 역사인식과 한·일간의 미래를 위한 심포지움과 연속 인터뷰를 게재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또 일본에서 협한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의 반일감정은 일본의 전후처리 및 반성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협한류』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기사는 없었지만 협한류 현상의 배경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1990년대에 현저한 발전을 이룬 한국에 대한 선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③ 한국 민족에 대한 인식

‘협한’이란 단어가 들어간 신문기사 136건 중 한국 민족에 관한 기사는 단 한 건뿐이다. 『마이니치신문』(2006. 3. 14)은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기획한 『재일한국인 역사(在日コリアンの歴史)』교과서의 출판소식을 전했다.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식문화와 문학, 영화 등을 테마로 한 칼럼도 많이 실려 있어 한국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는 소개와 함께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협한무드가 발생하여 재일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는 현재, 가장 가까운 이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朴<sup>43)</sup>의 코멘트도 덧붙이는 등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하였다.

#### ④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특히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내용은 신문기사 여러 곳에 등장하였지만, 역사인식의 현황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한 기사는 세 건<sup>44)</sup>뿐이다. 『아사히신문』은 한류 붐의 이면에 ‘嫌韓’의 역류도 함께 있는 현실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미디어가 한국사회의 실상을 충분히 전해왔는가를 지문함과 동시에 한국 측의 스트레오타입화한 ‘반일’보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동아시아공동체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때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참배가 이웃나라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비판하며, 배타적인 내서널리즘을 배제하고 상대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4대 신문의 기사들에는 혐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혐한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활발한 문화교류와 미디어의 역할,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전환, 양국 간의 신뢰관계 형성” 등이 논의 되었는데, 일본의 조선사연구자가 인터넷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한국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는 신선한 주장(朝日新聞, 2006. 9. 13)도 있었다. 네 신문의 공통점은 혐한의 원인을 일본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인식이 강했다는 점과 미디어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문제를 빌미로 교류중단을 단행한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정부와 언론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ch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성 언론에서 왔음을 생각해보면 때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단신기사 게재는 지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7.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혐한현상은 분명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ch를 비롯한 인터넷에는 한국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인식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일본 우익들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우익잡지들의 주장, 특히 『혐한류』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43) 『마이니치신문』은 朴<sup>43)</sup>의 책 『マンガ嫌韓流』를 인용하였다. 太田修·朴<sup>43)</sup> (著, 原著) 『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ーまじめな反論 不毛な「嫌韓」「反日」に終止符を! 対話と協力で平和を!! , コモンズ, 2006.

44) 이하는 모두 《아사히신문》의 기사이다.

1. 2005.11.04, 『歴史認識なお深い溝 「日韓編集セミナー」 兩國メディアが討論』, 大阪夕刊 6頁 文化 寫込有(全 1,549字).
2. 板垣龍太さん(2006.09.11.), (連続インタビュー 歴史認識) 『隣人への視線』 編: 1 植民地の記憶, 東京夕刊 4頁 文化 寫込有(全 1,855字).
3. 大沼保昭(2007.02.12.), 『(私の視点) 歴史認識と愛國心 國民の感覺を大事に』, 東京朝刊 8頁 オピニオン2 寫込有(全 1,888字).



또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4대 일간지에는 일본의 ‘협한현상’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해결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일본의 젊은이 모두가 ‘협한’에 빠져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면 2ch와 4대 신문 기사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본 다음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다.

2ch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협한류』의 내용과 흡사하였고, 표현방식도 매우 과격하였다. 하지만 협한류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인 대한인식이 18%나 존재하였다는 점과 협한류 게시판이 전체 인터넷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 여론조사와 4대 일간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대한인식과 많은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협한류 게시판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일본 사회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협한류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류 게시판에서 한류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52%나 되었다는 점과 협한류의 소스가 기존 미디어의 기사였다는 점, 인터넷의 주 이용자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책임져 나갈 젊은 세대라는 점,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폭발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4대 일간지의 논조는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경향이 강했다. 기사의 내용자체가 협한현상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기사여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단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보지로 여겨지는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가장 극우적이라 여겨지는 『산케이신문』과 다소 우파적이라 여겨지는 『요미우리신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2ch의 시각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들 신문의 공통점은 협한의 원인을 일본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인식이 강했다는 점과 미디어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또 활발한 문화교류와 미디어의 역할,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전환, 양국 간의 신뢰 등 협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한일우호증진을 위한 일본의 일간지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외신보도이다. 자세한 배경 설명없이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실린 한·중의 반일운동과 중국의 협한현상 보도는 일본인의 분노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언론 특히 흥미위주의 기사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한국의 미디어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2ch에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의 갖가지 기사들도 실시간으로 회람되고 있다. 협한류의 내용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기성 언론에서 왔음을 생각해볼 때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단신기사 게재는 지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협한류의 진원지인 2ch와 일본 4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협한류현상을 살펴본 결과 협한류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2ch에 대해 갖는 인식은 ‘화장실 낙서’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다, 문제의 ‘협한’ 게시판은 2ch의 수많은 게시판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게다가 협한일색이라 여겨졌던 2ch 협한류 게시판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우익정보의 발신지라 여겨지는 『산케이신문』도 한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희구하고 있었다. 인터넷문화는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이다. 따라서 많은 세월동안

전해오며 세련되게 발전되어 온 다른 놀이문화와는 달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주변화된 젊은이뿐만 아니라 평범한 젊은이들, 어른들까지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골치 아픈 사회문제나 심도 깊은 토론 대신 선정적이면서도 특이하고, 신기한 사진이나 기사를 함께 보고 즐기면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공유한다. 즉 기타다 아키히로(北田曉大)가 말했듯이 혐한류의 유행은 본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내부공간을 묶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혐한류에 대한 열광은 일본 젊은이들의 우경화라기보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생활양식구축과 ‘긴밀한 사회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양식이라 결론 지을 수 있다.

혐한류 현상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정부나 미디어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 하지만 2ch에 나타난 ‘혐한’ 내용의 정보는 기존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얻은 ‘근거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우리 미디어의 보도태도와 네티즌들의 반일감정 표출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일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왔다. 문제해결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도구인 미디어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감정에 편승한 보도태도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독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기사, 그리고 상대의 입장까지 고려한 기사를 제공한다면 지금과 같은 혐한현상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 Ⅰ 참고문헌

- 강동국 (2006). ‘혐한류’와 일본 내셔널리즘: 이해와 대응. 『동아시아 브리프』, 1권 1호 통권 1호(2006. 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강준만 (2001). 『세계의 대중매체 2』. 인물과 사상사.
- 고길희 (2007). ‘한류 붐’과 한반도 이미지의 양극화 현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제15집.
- 남덕우 (2006). 『국제화 시대의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中西新太郎 (2006, 2월). 開花する‘J ナショナリズム’ 嫌韓流というテキストが寫し出すもの. 『世界』. 岩波書店.
- 平井智尚 (2007, 3월). 2ちゃんねる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関する考察 —インターネットと世論形成に関する論への批判—.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 慶應義塾大學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57).
- 板垣龍太·小倉紀藏 著, 박광현 역 (2006). 한류를 바라보는 일본사회의 두 가지 시각. 『창작과 비평』, 2006년 여름호(통권 132호. 2006. 6), 405~423.

板垣龍太 (2008). ‘嫌韓流’의 構造 X 其他, 言論狀況を考へる韓流と嫌韓流のはざまでセミナー, 平和力フォーラム.

松村眞宏・加藤優・大澤幸生・石塚滿 (2004). 2ちゃんねるが盛り上がるダイナミズム. 『情報處理學會論文誌』, Vol. 45, No. 3, 1053~1061.

高原基彰 (2006). 『不安型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 - 日韓中のネット世代が憎みあう本当の理由. 洋泉社.

東造紀 (2001). 『動物化するポストモダン』 - オタクから見た日本社會. 講談社現代新書.

小倉紀藏 (2005). 『歴史認識を乗り越える』 - 日中韓の對話を阻むものは何か. 講談社現代新書.

大石裕・山本信人 (2006). 『メディア・ナショナリズムのゆくえ』 - 『日中摩擦』を検証する. 朝日新聞社.

日本新聞協會編輯 (2007). 『日本新聞年鑑』. 電通.

北田曉大 (2005). 『嗤う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NHKブックス(日本放送出版協會).

<http://www.2ch.net>

<http://www.wab.ne.jp>

<http://www.dentsu.co.jp/>

<http://kukuri.tistory.com/>

<http://d.hatena.ne.jp/keyword/>

<http://blog.naver.com/kyckhan>

<http://www.media-k.co.jp/jiten/>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동아일보』,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産経新聞』

(투고일자: 2009.02.27, 수정일자: 2009.07.11, 게재확정일자: 2009.07.22)

ABSTRACT

## Media nationalism and Hate Korea wave in Japan: 2ch and the Four daily newspapers in Japan

Soo-Ok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bilateral friendly relations, the elements that hinder Hate Korea wave's(Kenkanryu) status and an analyz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ts causes and solutions for it. The Hate Korea wave is to be discussed in the fountain Hate Korea wave 2ch(2channel, ni channeru) acquaintances of information and representation to analyze the causes of this Japanese anti-Korean thinking. All of society should be aware of the differences and see what we have in common. I researched discussions of 2ch information and the content of other similar media. The expression was very violent. However, there was both general awareness of a gap between criticism and support. The gap was about what is not unusual on the Internet and not to be greatly concerned about.

I also compares anti-Korean's awareness to Korea with general Japanese's, and finds that there are gap between them. For example by analyzing general Japanese's awareness we can find 18% of people who criticize the Hate Korea wave or have positive image of Korea. futhermore the proportion of anti-Korean contents in internet is not very high, so we don't have to worrying about the phenomenon seriously. but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points, there are sufficient needs to concern about the phenomenon constantly. First, sources of Hate Korea wave are traditional media. Second, the consumers of Hate Korea wave are mainly young generation who will make future relation of two countries. And last, Hate Korea wave include potential power to explode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Key Word: Hate Korea wave(Kenkanryu), 2ch, Media nationalism, Internet

---

\* Doctoral Program(Dep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apanese Area Studies Major, Kookmin University)